

나라사랑 역사의 길

제5편_한강과 전쟁의 기억, 노량진과 용산

‘나라사랑 역사의 길’은 독립기념관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기록물이다. 이 길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사적지를 중심으로 현충시설, 전근대 역사유적, 경관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역사의 길로, 우리나라 989개의 독립운동시설과 1,322개의 국가수호시설 등 총 2,311개의 현충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탐방 코스를 제공한다.

도로교통 저널에서는 독립운동과 6·25전쟁의 국가수호 사적지를 알리고, ‘나라사랑 역사의 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 연재를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1950년 6월 28일 한강인도교 폭파 작전을 중심으로 6·25전쟁 초기 한강 방어전투 전반을 이해하고,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6·25전쟁을 기억해 보자.

탐방로 안내

1950년 6월 28일 한강인도교 폭파 작전을 중심으로 6·25전쟁 초기 한강 방어전투 전반을 이해하고,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6·25전쟁을 기억해 보자.



탐방로 안내

- | | |
|------------------|-------------------|
| ① 노량진 전투지 | ④ 옛 국방부 터 |
| ② 한강인도교 폭파지 | ⑤ 옛 육군본부 터(전쟁기념관) |
| ③ 전쟁 당시 철도수송본부 터 | |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 노량진 일대(총 소요시간 약 120분)

코스 개요

1950년 6월 27일 밤, 북한군이 미아리고개를 넘어 서울로 진입하자 육군본부는 한강에 가설된 한강 인도교와 3개의 철교에 대한 폭파 준비를 서둘러 완료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이 돈암동에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28일 새벽 2시, 한

강 교량의 폭파를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 일원에 배치되었던 한국군 5개 사단과 각 지원부대의 퇴로가 차단되었으며, 한국군 총병력의 46%가 분산되거나 상실되었다. 한편, 북한군 제1군단은 남침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2군단은 최초 작전계획대로 수원으로 우회 기동하여, 한강 연변에서 방어선을 형성 중인 한국군을 배후에서 협공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한국군은 한강선에서 방어하기 위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김흥일 소장)를 편성하여 투입하였다.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놀랍게도 한국군 주력 부대들이 흩어진 지 불과 10시간 만에 3개 혼성 사단을 편성하여 양화동-광진교 간 한강 연변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한국군은 이 병력으로 7월 3일까지 한강 방어선과 용인, 곤지암으로 이어지는 전선을 유지한 뒤, 다음 날부터 수원 남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부터 오산과 안성 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한 미군과 함께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으며, 이때부터 한국군은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며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게 되었다.



노량진 전투지



1950년 6월 28일 새벽, 국군은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였다. 그러나 상행 철교는 파괴되지 않았고, 북한군은 이를 이용해 전차를 포함한 병력을 도하시켰다. 이에 따라 국군은 노량진-동작동 방어선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혼성 제7사단에 방어를 맡겼다. 그러나 북한군은 여의도를 주 도하선으로 선택하였으며, 7월 3일 새벽 상행 철교를 통해 전차를 도하시킨 후 국군 방어선을 압박하였다. 결국 국군은 방어선을 지키지 못하고 시흥-안양-수원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현재 노량진 전투지는 사육신공원 내 한강 조망 명소로 조성되어 있으며, 당시 전투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314

한강인도교 폭파지



1950년 6월 27일,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은 서울 철수와 함께 한강 교량 폭파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군과 장비, 군수품이 철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고, 피난민과 군인 500~80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였다. 책임자로 지목된 최창식 공병감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6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 수복 후 부교가 가설되었으나, 1·4후퇴 당시 다시 폭파되었으며, 2007년 처음으로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4-4, 한강대교

전쟁 당시 철도수송본부 터(현 용사의 집)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 직후 교통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철도수송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6월 26일 북한 공군기의 공습으로 본부는 영등포역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수원-대전-부산으로 차례로 옮겨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철도 운영권이 유엔군으로 넘어갔으며, 철도원 100여 명이 순직, 기관차와 교량 등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철도수송본부는 병력과 보급품 수송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 및 피난민 수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옛 국방부 터



국방부 청사는 창설 초기 을지로 입구의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사용하다가, 북한군 남침 시 조선군사령부 자리로 이동하였다. 1950년 6월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신성모 국방장관 주재로 군 수뇌부 회의가 열렸으며, 오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해 전황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전선이 악화되면서 6월 27일 새벽, 각군 본부는 수원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남대문 건물에 임시 거처를 두었다가, 휴전 직후 원래 청사로 복귀하였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1

옛 육군본부 터



한국 육군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되어, 국방부와 함께 을지로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사용하다가 이후 조선군사령부 건물로 이전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후 전군에 비상령을 내리고 방어를 지휘했으나, 전선이 악화되면서 6월 27일 오후 1시 시흥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수원-대전-대구-부산으로 이동하며 작전 지휘를 이어갔으며, 전쟁이 끝난 후 1955년 3월 1일 서울로 복귀하여 현재의 전쟁기념관 부지에 육군본부를 신축하였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1

출처: 독립기념관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홈페이지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주신 독립기념관, 서울특별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